2019년 전문대 10명 중 9명은 수시 모집

입학전형 발표…87%로 늘어
총 모집인원 3900명 감축
'유턴족' 등 특별전형이 절반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에게 해당되는 '2019학년도 전문대 입시'도 전체 모집인원의 87%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전국 136개 전문대학의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총 모집인원은 20만6207명으로 2018학년도(21만129명)보다 3922명(1.9%) 줄어들었다.

135개 대학이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87%인 17만9404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으로는 136개 대학이 2만6803명(13%)을 각각 선발한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 수시모집 인원은 2018학년도(17만8861명·85.1%)에 비해 543명이 증가했다.

■ 2019학년도 광주·전남 전문대학별 모집인원 현황

(단위:명)

대학명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인원
고구려대	750	1083	1833
광양보건대	611	198	809
광주보건대	80	1282	1362
동강대	56	1636	1692
목포과학대	563	509	1072
서영대	755	1425	2180
순천제일대	638	600	1238
전남과학대	1146	368	1514
전남도립대	640	478	1118
조선간호대	139	54	193
조선이공대	43	1942	1985
청암대	783	416	1199
한영대	162	616	778

〈자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핵심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전체 인원의 72.7%인 15만14명을 모집하고 면접 위주 전형으로는 2만152명(9.8%)을 뽑는다. 서류 위주 전형 1만8766명(9.1%) 등이다.

수능은 129개 대학이 반영하는데, 2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이 60곳으로 가장 많고, 3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31곳, 4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21곳이다. 18개 대학은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광주보건대 1362명 ▲동강대 1692명 ▲순천제일대 1238명 ▲전남과학대 1514명 ▲전남도립대 1118명 ▲조선이공대 1985명 ▲조선간호대 193명 등이다.

사회적배려자·지역적배려자·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정원내)이 전체 모집 인원의 47.7%를 차지한다. 정원내 일반전형은 34.2%, 대졸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 외 특별전형은 18.1%다.

특히 취업난 속에 4년제 대학을 다니다 전문대학으로 입학하는 '유턴족' 등을 고려, 직장인이나 퇴직자·은퇴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으로 84개 대학에서 3793명을 선발키로 했다. 수시 1차는 내년 9월 10~28일, 수시 2차는 내년 11월6~20일 원서를 접수해 내년 12월14일까지 최초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시모집은 내년 12월29일부터 2019년 1월1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019년 2월8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4년제 일반대와 달리 전문대는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정시모집에서도 '군별' 모집을 하지 않는다. 수시·정시모집 모두 전문대와 일반대 간 복수 지원도 할 수 있다.

단 수시모집에서 일반대·산업대·교육대·전문대 가운데 1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린이 농부의 모내기 광주 하남초교가 마련한 '논두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난 20일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인근 논에서 모심기를 하고 있다. '논두레' 프로그램은 모를 직접 심어보고 수확해 나누는 체험으로 이뤄졌으며 하남초, 광산구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 2년…8만 청소년 사회 품으로

광주·전남 22개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년간 이 법에 따라 청소년 8만3000여명이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5년 5월29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는 1만3988명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검정고시를 치러 학업에 복귀했다. 직업훈련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에 나간 청소년은 1만1686명이다. 작년부터 시행한 무료 건강검진은 7000여명이 받았다.

여가부는 광주 6곳, 전남 16곳 등 전국 202곳에 마련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공부를 계속하려는 청소년은 검정고시 등에 필요한 기초학습 역량을 높여주고 대학생 멘토를 지원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적성검사와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돕는다. 심리·정서 지도와 자원봉사·체력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밖 청소년을 정부 정책으로 지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고교생 산업체 현장실습 서약 강요는 인권침해"

청소년 인권단체 진정서 제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때 서약서를 강요하고 교내에 취업률을 게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청소년·인권단체가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 등 청소년·인권단체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교육현장과 산업체 실습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다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교실과 교외에 취업률을 게시해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취업 압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무실 취업률 현황판에 취업 여부에 따라 학생을 분류하고 교문에 취업생 사진과 이름이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학교 복도에 취업생 얼굴과 반, 이름 등을 표시하는 광고판을 게시하는 학교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학부모가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앞서 "교칙과 사규를 준수하고 근무장소 무단이탈이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내야 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서약서 작성이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실습 중 사업장에서의 노동권 침해를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것이 현장실습제도"라며 "정부와 기업,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고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을 강조해왔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올해 1월23일 전북 전주에서는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일했던 특성화고 고교생 A(19)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가정 폭력 초등생 위한 기숙학교 운영

광주교육청 '캠프 햇살마당'

광주시교육청은 가정 폭력 등으로부터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초등학생을 위한 주택형 초등학교 가정형 위(Wee) 센터인 '캠프 햇살마당'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캠프 햇살마당은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인 살레시오 수녀회가 위탁 운영한다.

기존 위센터는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시·도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한 학생상담 지원기관이지만 가정형 위센터는 가정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3~6개월간 기숙 생활을 하며 상담과 치유,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소 대상은 광주시내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으로 정원은 15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교육단신

31일 광주교육 원탁토론회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주공고 체육관에서 광주지역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의 새로운 변화! 그 길을 함께 찾다'를 주제로 '제 6회 광주교육 원탁토론회'를 연다.

전남대, 내달 2일 진로 박람회

전남대는 오는 6월 2일부터 이틀간 광주캠퍼스 일대에서 '2017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전공 상담 및 체험, 대학생활 탐색, 진학특강, 심리검사와 자기이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6일 광주교육청 대입 설명회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호남권 대학 입학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1·2부로 나눠 전남대, 조선대, 남부대, 원광대, 전북대, 광주교대, 광주대, 동신대 입학사정관 등이 참석, 학교 입학전형을 소개한다.